포 커 스

결속기 수출 주력

관리경영 중점

신은식/ (주)경인팩 대표이사

지난 6월 말 결속기 전문업체인 경인팩이 국내 최초로 CE마크를 획득했다.

경인팩의 신은식 사장은 "그간의 힘들었던 것들이 유럽에서도 인정하는 CE마크 획득의 기쁨으로 인해 말끔히 씻겨 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세계적인 경인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인팩의 모체인 경인화학에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약 20여 년간 실질적인 실무를 쌓은 뒤 1993년 6월 경인팩 설립, 화훼결속기 자동화 개발을 시작으로 꾸준한 노력과 일에 대한 열의로 국내 결속기 전문업체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신 사장은 "처음 경인화학에 있을 당시 영업부에 있었던 저는 영업 전략으로 거래처의 결속기를 A/S 해 주게 되었고, 이것이 기술로 축적됨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경인팩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신 사장은 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100% 수입해 쓰던 자동매듭 결속기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그 당시 결속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쓰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결속기를 국산화시키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1996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97년 10월 마침내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 때의 기쁨은 지금까지도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신 사장에게도 시련의 시간은 있었다.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1988년 경인화학에 있을 당시 화재가 나 공장은 물론 모든 기계를 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박동에 있던 공장이 계수동으로 옮겨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인팩을 설립한 해 화를 당했습니다. 화재 피해가 처음보다는 적었으나 그 당시 모든 것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저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으로 작

용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다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하며, 화재로 인해 재로 변해버린 공장 사진을 꺼내 보여주기도 하였다.

신 사장이 경인팩을 설립, 꾸준한 성장을 보일 당시 결속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곳이나 더 있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는 생산은 성공했으나 관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신 사장은 말했다. "무작정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산과 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리까지 덧붙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인팩에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리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리고 국내 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그 하나로 경인팩은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여 대내 · 외적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품을 개발, 소개한 바 있다.

경인팩은 7품목의 특허출원을 이루어 화훼자동매듭 결속기와 산업용 자동매듭 결속기등 다양한 기종을 자체개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에어 필림 포장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한 개발된 기종으로는 농촌진흥청 농기계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자동 절화 결속장치와 6품목을 정부 농기계 검사소에서 형식검사에 합격함으로써 농림부로부터 인정받는 품목이 되었다. 그 외 에어필림 포장기, 자동콘베아결속기, 절화 길이/중량 선별기 등의 10개 품목을 국산화시킴으로써 국내생산 판매와 부품 및 자동매듭결속기를 일본, 미주, 동남아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 사장은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에는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하고,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를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덧붙여 "영업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신 사장은 성실, 정직, 진실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꼽는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만 머무르면 안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본 기계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일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최고의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굳은 각오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 사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결속기는 끈이 꼬여져 나와 겉 포장재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2002년 한반기 경에는 완료가 되어 새롭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라며 "또한 소포장 추세에 맞춰 소형 농수산물 필름포장기및 결속기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결속기 생산 업체로 거듭날 경인팩을 기대해 보며, 이를 이끌어 나갈 신 사장의 활약에 기대해 본다. ko

권해진 기자